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올해 미 고용주, 일자리 1백만 개 이상 축소
- Bloomberg: 미 저소득층/중산층 소비 줄면서 미 경제 '흔들'
- Bloomberg: 시카고 연준 총재, "데이터 없이 금리 인하하면 불안하다"

[연방 섣다운 여파]

- WSJ: 섣다운으로 40개 공항에서 항공편 줄어

[무역전쟁]

- Bloomberg: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한다면?

[비자]

- Bloomberg: H-1B 비자 취업, 점점 어려워진다

[주택]

- WSJ: 건설업체들의 모기지율 할인 제공에도 구매 낮다

[오일]

- Bloomberg: 유가 안정세...사우디 가격 인하 및 공급 우려로

[인공지능]

- WSJ: AI, 빅테크의 광고 산업 지배 가속화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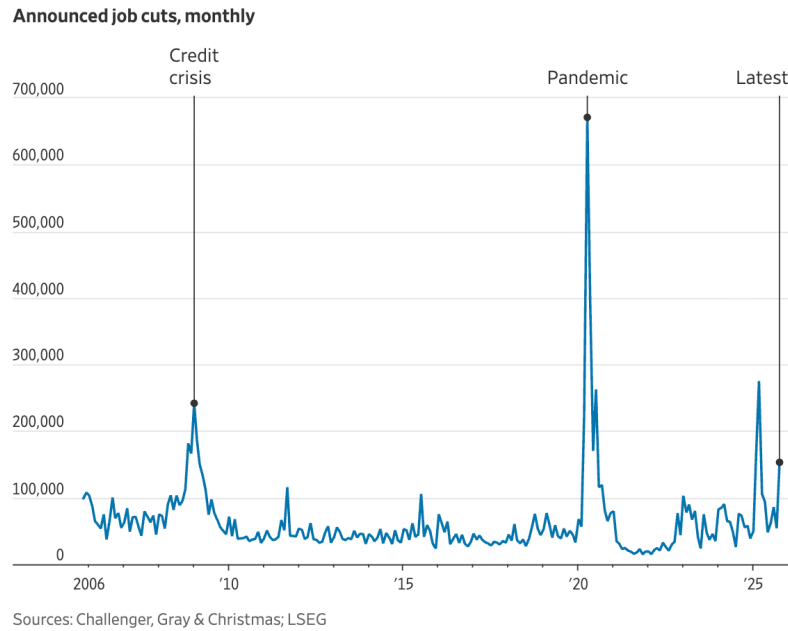
- CNBC: 리프트, 유나이티드 항공과 손잡고 로열티 프로그램 출시
- Bloomberg: 미국 명품 쇼핑객, 가격 인상에 동요 없어

[미국 경제]

WSJ: Employers Cut More Than a Million Jobs This Year

올해 미 고용주, 1백만개 이상 일자리 축소

- 컨설팅 회사 Challenger, Gray and Christmas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 고용주들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1백9만9천5백개의 일자리를 줄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줄인 숫자가 65% 증가했고, 작년 전체 기간에 비해서는 44% 증가했다. 비용 축소와 AI 활용 탓이다.
- 그리고 올해 10월 발표된 일자리 축소는 9월의 5만 4천 64개에 비해 3배 늘어난 15만 3천 74개로 나타났다.
- 가장 많이 줄어든 일자리는 창고직 업종으로 4만 8천개, 기술 기업들도 3만 3천개를 줄였다.



WSJ 기사

Bloomberg: ‘Jenga Tower’ US Economy Teeters as Middle Class Pulls Back Spe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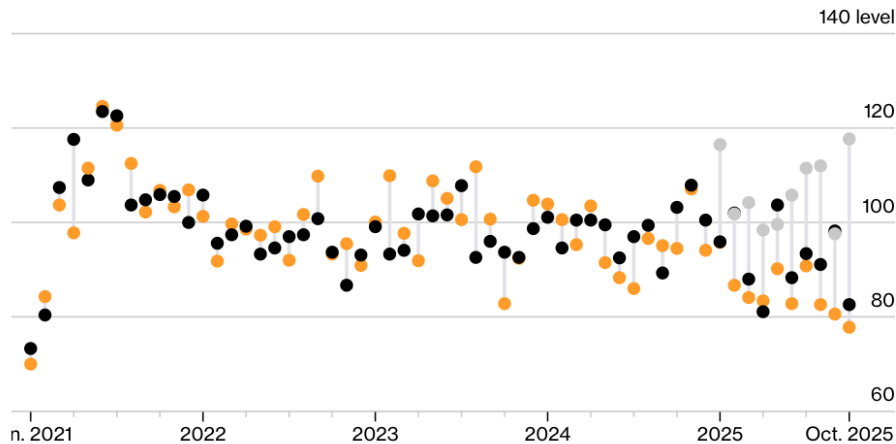
미 저소득층/중산층 소비 줄면서 미 경제 ‘흔들’

- 미 경제는 고소득층에 의해 주도 되고 있는데 상위 10%가 미 전체 지출은 반을 차지하고 있다.
- 반면에 소득이 적은 계층은 뻣뻣한 예상, 높은 생활비용, 기업의 해고로 인해 지출을 줄이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가 침체로 인해 더 취약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 경제학자들은 우려하고 있는데 주식 시장의 하락이 고소득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침체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미국 경제를 바쳐주는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Confidence Sinking Among US Lower-Income Earners

By contrast, wealthier households are upbeat as stock market rallies

● \$25k-34k ● \$35k-49k ● \$200k and above



Source: The Conference Board

Note: Data for \$200k-plus available only for 2025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s Goolsbee Says He's Uneasy About Rate Cuts Without Data

시카고 연준 총재 “데이터 없이 금리 인하하면 불안하다”

- 시카고 연준 총재인 Austan Goolsbee는 정부가 섰다운 되는 상황에서 경제 관련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금리를 인하하면 본인은 불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노동시장에 대한 데이터에 비해 인플레이에 대한 민간기관의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섰다운 기간 동안에 물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연준 관리들은 분명한 입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 그는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은 분야에서도 핵심 서비스 물가 압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 한편 에너지 관련 물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는 올해 9월까지 3.5%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연방 섰다운 여파]

WSJ: U.S. to Reduce Flight Traffic by 10% at 40 Airports Because of Shutdown

섰다운으로 40개 공항에서 항공편 줄여

- 연방 항공청은 연방정부 섰다운 때문에 40개 주요 공항의 항공편을 10% 줄이라고 지시하고 있다.
- 항만청장 Sean Duffy는 지난 금요일부터 이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편 지연과 취소 사태 상황에서 비행 안전을 유지할 목적이라고 말했다.

- 현재 항공 관제사들과 연방 교통안전청 공무원들은 섯다운으로 인해 급여 없이 수주간 일한 후에 일을 빠지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다.

WSJ 기사

[무역전쟁]

Bloomberg: How Fresh US Tariff Doubts Will Play Out Among Trading Partners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 한다면?

- Bloomberg Economics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가 위헌으로 판결될 경우 미국의 평균 실제 관세율은 6.5%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는 관세가 대법원으로부터 허용되지 않을 경우 다른 법적 권한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갈등이기 때문이다.
- 현재 중국의 관영 통신들은 위헌 결정이 되어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하고 있다.
- 특히 일본과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 상황이 크게 변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미국과 관세 협정을 맺은 반면 한국은 아직 공식 협정을 맺지 않았지만 두 나라 모두 힘들게 맺은 합의를 파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rump's Statutory Authority to Impose Tariffs Beyond IEEPA

There are at least five other options if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cannot be u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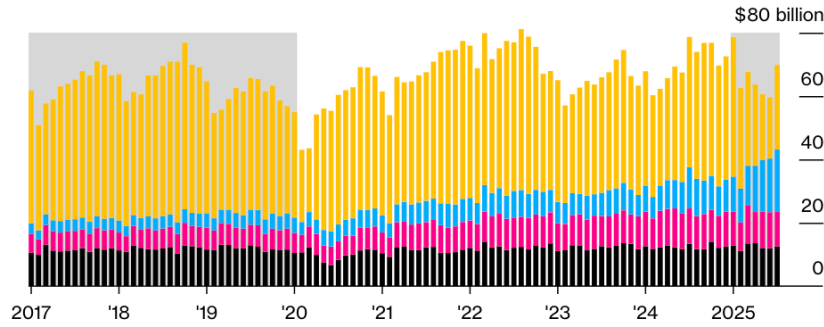
	Reason for imposing tariffs	Federal agency investigation required?	Limit on duration of action	Limit on tariff rate
Section 232	Threat to national security	Yes, by Commerce Department	None	None
Section 201	Injury to domestic industry	Yes, by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Four years. May be extended to a maximum of eight years.	50% increase. Phasedown required after one year.
Section 301	Discrimination against US businesses or violation of US rights under trade agreements	Yes, by US Trade Representative	Four years. May be extended with no maximum limit.	None
Section 122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	No	150 days. Can be extended with Congressional approval.	15%
Section 338	Discrimination against US commerce	No	None	50%

Sourc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Bloomberg.

Imports From Taiwan Are Soaring on AI Demand

While shipments from China shrink

■ Japan ■ South Korea ■ Taiwan ■ China (including Hong Kong and Macau)
■ Trump administrations



Source: US Census Bureau

Bloomberg 기사

[비자]

Bloomberg: H-1B Visa Hopefuls Are Being Shut Out of Jobs by Wary Recruiters

H-1B 비자 취업, 점점 어려워진다

- 많은 외국인 졸업생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취업 비자를 스폰서해주는 데에 있어 소극적인 것이 주요 요인이다.
- H-1B 스폰서를 제공하는 구인 공고의 비중은 2023년 10.9%에서 2025년 1.9%로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기술 부문에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이며 작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 현재 화이트칼라 일자리 시장은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도 어려운 상황인데, 22세에서 27세 사이의 대학 졸업생 실업률은 4월에 5.8%에 달하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9월 H-1B 비자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으며, 관계자들은 이 규정이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는 산업의 채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ndia Leads by a Wide Margin in 2024 H-1B Visa Allocations

More than 70% of visas issued went to sponsored Indian nationals

Country of Birth	Number
India	283,397
China	46,680
Philippines	5,248
Canada	4,222
South Korea	3,983
Mexico	3,333
Taiwan	3,099
Pakistan	3,052
Brazil	2,638
Nigeria	2,273

Sourc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Bloomberg 기사

[주택]

WSJ: Builders Are Offering Mortgage-Rate Discounts. Home Buyers Aren't Biting.**건설업체들의 모기지율 할인 제공에도 구매 낮다**

- 미국 최대 건설사들이 4%의 모기지율 제공에도 주택 판매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금리 인하만으로는 주택 시장의 부진한 매매를 되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 미국 2위 건설사 LENNAR은 지난 분기 평균 주택 매매 건당 6만 4천 달러 상당의 인센티브와 주택 담보 대출 보조를 제공했다고 밝혔는데, 이처럼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한 것은 세계 금융 위기 때 이후 처음이다.
- 이러한 인센티브 비용 상승으로 이익 마진에 타격을 입어 건설사들은 공사 속도를 늦추고 수요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 현재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건축 법규가 완화되고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택 건설이 급증해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고 있다.
- 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외국인 구매자들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새 주택 판매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이다.

Number of completed, unsold new homes

220 thousand homes



Source: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WSJ 기사

[오일]

Bloomberg: Oil Steadies as Traders Weigh Saudi Price Cut, Supply Concer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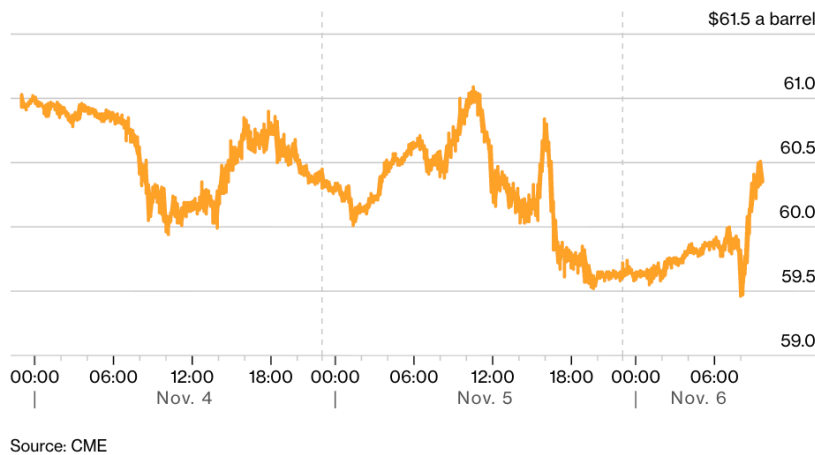
유가 안정세...사우디 가격 인하 및 공급 우려로

- 원유 주요 생산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가격 인하와 공급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가는 안정세를 보였다.
- 브렌트유는 2.1% 하락한 후 64달러 근처에서 거래되었고, 달러화 지표가 하락하면서 달러화로 표시된 상품의 매력도는 높아졌다.
- 사우디의 원유 가격 인하는 예상에 부합했으나,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제재 및 인접 국가 에너지 인프라 공격이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 한편, 브렌트유는 세계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들어 거의 15% 하락했다.
- 지난달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가한 이후 유가는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Oil Recovers After Choppy Run

Prices claw back losses from previous two sessions

US crude futures



Bloomberg 기사

[인공지능]

WSJ: AI Is Accelerating Tech Giants' Dominance of the Ad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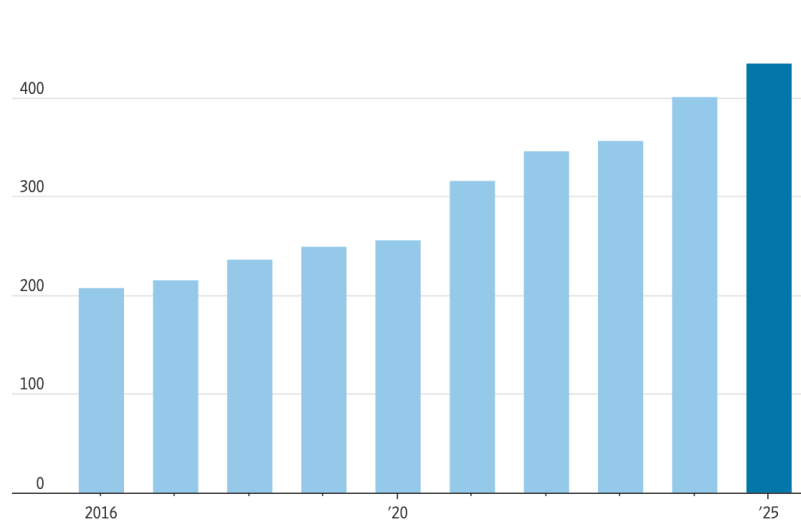
AI, 빅테크의 광고 산업 지배 가속화

-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광고 분야에서도 이미 빠르게 발전하며 매출을 늘리고 있다.
- 이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고객에게 더욱 정확하게 광고를 타겟팅하는데, AI가 이를 더욱 개선하여 이들의 광고 시장 장악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미국의 광고 지출은 올해 8.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메타, 구글, 아마존이 미국 광고 시장의 56%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Google의 모회사 Alphabet은 Google 검색을 위한 AI 요약 기능에 투자한 것이 더 많은 질의응답과 검색 대화를 이끌어냈으며, 이로 인해 쇼핑과 광고가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 Meta CEO 마크 주커버그는 AI가 더 큰 효율성과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Meta의 광고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 AI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고객에게 직접 홍보하는 과정을 더욱 쉽게 만들어 주는 등 광고 산업을 다른 방식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 기업의 비용 절감이 절실한 현 상황에서 기업들이 모든 광고 비용의 효과를 AI를 통해 극대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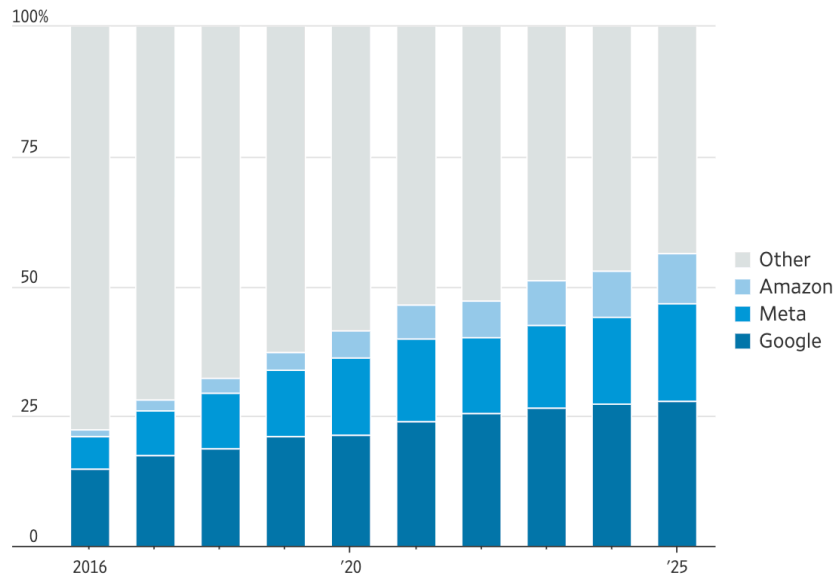
U.S. ad spending, annually

\$500 billion



Note: 2025 figure is a projection.
Source: Madison & Wall

Share of U.S. ad market



Note: 2025 figures are projections.
Source: Madison & Wall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Lyft, United Airlines launch loyalty program months after Delta partnership ends

리프트, 유나이티드 항공과 손잡고 로열티 프로그램 출시

- 리프트가 델타 항공과의 8년간의 파트너십이 종료된 지 몇 달 만에 유나이티드 항공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전했다.
- 이들은 리프트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유나이티드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 일반 픽업 이용 시 1달러 당 1마일, 비즈니스 프로필 이용 시 1달러 당 2마일을 적립할 수 있다. 일반 공항을 이용할 때는 1달러당 3마일을 적립하며, 사전 예약 시에는 1달러당 4마일을 적립한다.
- 한편, 항공사들은 최근 몇 년간 수익을 늘리기 위해 로열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고객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CNBC 기사

Bloomberg: US Luxury Shoppers Unfazed by Price Hikes, Says Top Rolex Seller

미국 명품 쇼핑객, 가격 인상에 동요 없어

- Watches of Switzerland Group Plc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스위스제 시계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매출이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 이들은 영국 최대의 롤렉스 공식 판매업체이며, 미국 시장의 호조에 힘입어 연간 전망을 재조정할 바 있다.
- 이 회사의 핵심 고객 중 상당수는 가장 수요가 많은 시계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으며, 가격 인상이나 경제적 압박에 덜 민감한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 한편, 미국이 스위스 수입품에 39% 관세를 부과하면서 올해 초 이래로 Watches of Switzerland의 주가는 약 26% 하락한 바 있다.

Bloomberg 기사

KOCHAM | 460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